

전일동향

전일대비 8.30원 상승한 1,394.7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8.30원 상승한 1,394.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9.60원 상승한 1,396.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장 초반 네고 물량과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어 하락세를 시현했다. 다만, 오후장에서 환율은 중국 및 국내 증시 하락 영향에 상승세를 재개하며 1,394.7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5.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08.8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96.00	1402.80	1392.50	1394.70	1395.30
	엔화	909.07	914.84	906.12	907.70	-
	유로화	1485.87	1498.69	1483.72	1486.15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13	-5.6	-12.48	-25.63
	결제환율(수입)	-0.47	-4.62	-10.64	-22.1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트럼프 트레이드에...1,40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94.70) 대비 6.65원 상승한 1,400.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 재개에 따른 달러 강세에 상승이 예상된다. 전일 미 달러화는 미국 휴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측근으로 권력 요직을 채울 가능성에 관세와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더해 미국 하원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이 214석으로 늘어나며 레드 스윙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는 강세를 시현했다. 간밤 달러지수는 0.53% 상승한 105.50pt를 기록했다. 한편, 뉴욕증시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친기업적 공약과 감세,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일 환율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달러 강세 및 미국 주식투자를 위한 환전수요 등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와 당국 미세조정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94.50 ~ 1408.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821.1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55원 ↑
	■ 美 다우지수 : Holyday((FX, FI) Veterans Day)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4.8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16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